

#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문화 선플국회의원이 앞장!

청소년 선정,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활짝  
20대 국회 시작부터 지난 10월까지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 분석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플 실천 국회의원 선정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11월 7일(월) 오후 5시 30분에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4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들이 지난 10월 한달 간, 20대 국회 시작부터 지난 10월까지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을 선발하였고, 모니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수상 국회의원의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성명 가나다 순)에는 김도읍(새누리, 부산 북구강서구), 김영진(더민주, 경기 수원시), 김영호(더민주, 서울 서대문구), 김진표(더민주, 경기 수원시), 김한정(더민주, 경기 남양주시), 김현아(새누리, 비례), 남인순(더민주, 서울 송파구), 박성중(새누리, 서울 서초구), 박주민(더민주, 서울 은평구), 박주진(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백승주(새누리, 경북 구

미시갑), 백재현(더민주, 경기 광명시), 소병훈(더민주, 경기 광주시), 신상진(새누리, 경기 성남시중원구), 심재철(새누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양승조(더민주, 충남 천안시), 유민봉(새누리, 비례대표), 윤소하(정의당, 비례), 이용호(국민의당,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이종배(새누리, 충북 충주시), 이철규(새누리, 강원 동해시 삼척시), 이철희(더민주, 비례), 전희경(새누리, 비례), 조정식(더민주, 경기 시흥시), 최경환(국민의당, 광주 북구), 홍철호(새누리, 경기 김포시) 국회의원이 선정되었고, 선플대상에는 조경태(새누리, 부산 시하구), 표창원(더민주, 경기 용인시정), 유성엽(국민의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 정세균(무소속,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공동 선정되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전국대교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선플재단은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추방하고 주위사람의 발목을 잡는 대신에 더욱 더 잘되도록

응원과 배려를 해주자는 선플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이 어른들이 함께하는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문화가 자리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런 좋은 운동을 동참하게 되어 고맙고, 오늘 수상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고 영상으로 축하했다.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은 "수상하신 여러분들께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착한 말과 좋은 말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수상받으신 분들보고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축하했다. 이상종 선플교사협의회 서울회장은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선플SNS기자단 대표 학생들이 2016년 10월 한달간 선플교사들의 지도하에 20대국회의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실천하는 선플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라며 자세한 수상자 선정과정과 선정 진행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상종 서울회장은 "청소년들

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전국선플지도교사협의회 교사들이 협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제시한 분석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적으로 고등학생 기자단 학생들이 각각의 회의록을 여러명의 학생들이 회의록에 기재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크된 내용을 2차적으로 대학생기자단이 재검토와 집계를 하였고, 선플지도교사들과 선플참여교수들에 의해 3차검토를 거쳐, 순화언어 사용 점수에서 비순화점수를 뺀 점수가 높은 순서로 국회의원 31명을 선정, 그 중 순화언어 사용이 가장 많은 각 정당별 한명을 선정하여 선플국회의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신상진 공동위원장은 "오늘 받은 상이 가장 기쁘고 의미있는 상일 것 같습니다."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주는 상이라 정말 귀하고, 또 좋은 말 이빨말 쓰라고 격려해주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주는 상이라 알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청소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선플운동을 전국적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의 모습(두 번째줄 왼쪽부터 이종배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 표창원 국회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신상진 국회의원, 세 번째줄 왼쪽부터 백승주 국회의원, 전희경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으로 펼치고 계신 민병철 이사장님 계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수상한 국회의원의 상패 전달은 전국 선플누리단 대표 학생들이 맡았다. 양재오의 감승원학생은 "학생이 직접 선정해서 상을 준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고, 직접 참여해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뿌듯하다."라며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기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보기도 어렵고, TV에서만 보았던 분들이었는데 직접 저희가 선정도 하고, 선정을 하면서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과 조금은 가까워진 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재오의 구민영 학생은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제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선정한 분들이 있으셔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상진, 심재권, 유성엽)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선플교사협의회, 전국 청소년선플SNS기자단, 선플포럼 (회장 한동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김민정 기자



우리말 나들이 특집드라마 X

## 언어오염 막자 '우리말 나들이'에 MBC 아나운서들 출연

MBC '우리말 나들이' 특집 특집 60초 드라마 X'를 선보인다. 11월 2일 MBC에 따르면 20여년 간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MBC '우리말 나들이'에서 아침처럼 준비한 이번 특집 드라마는 청소년 언어순화를 주제로 기존의 특집 형식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드라마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드라마는 MBC 아나운서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순수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아나운서들의 연기를 통해 그들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재미가 기대된다. 주인공 봉이도의 친구인 구원태 역으로 출연한 김원태 아나운서는 외모가 뛰어난 고등학교 1학년

연기를 능청스럽게 선보였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체할 수 없는 끼를 선보였던 김원태 아나운서는 한때 연기가 꿈이었다며 촬영장에서 분위기를 메이커로서 연기에 열정을 보였고, 봉이도 역을 맡은 배우 서민성과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다. 또한 최대현 아나운서를 비롯해 양승은, 이정민, 서인 아나운서 등

이 출연해 그들의 숨겨진 끼와 색다른 모습들을 선보인다. 아나운서들과 함께 전문배우들과 아역배우들도 참여한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펼쳐나간다. 주인공인 '봉이도' 역은 배우 서민성과 아역배우 신상용이 맡았다. 뛰어난 봉이도를 맡은 배우 서민성은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베테랑 배우이다. 또 MBC '드림 주니어' 진행자

인 임선우와, 신상용, 이태현이 뜻깊은 고등학생 역을 맡아 눈길을 모은다. '우리말 나들이' 특집 드라마 X'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또래언어의 오염이 성장기 10대들의 뇌에 미치는 악영향과 심각성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늘어버린 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심대들의 뇌와 외모가 늘어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지며 주인공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경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핸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고품격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 “SNS일상화시대 선플이 넘쳐나야 더욱 희망찬 세상”

## 정세균 의원 (선플 大賞)



학생들이라는 젊은 신세대들은 사실 때 묻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비교적 바르게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학생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성세대들은 다음세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까지 받았으니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바른 선플 운동 정신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과거 백봉신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신사라면 당연히 악플 대신 선플을 달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제게 선플상을 수여해 준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칭찬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SNS가 일상화 되고 넘쳐나는 이 때에 선플은 넘쳐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듭시다.

## 유성업 의원 (선플 大賞)



광위원장, 국민의당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유성업입니다.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선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국 청소년선플SNS기자단이 모니터하여 꼼꼼하게 선정하였다고 하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많은 부분에서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플로 인해 고통받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글, 행동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거친 말, 악플들로 인해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주변사람들은 크게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말과 글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고 더 높은 인성의 소유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예쁜 말과 글들이 모여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운 말과 글을 사용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아름다운 말과 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 조경태 의원 (선플 大賞)



게 되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3년 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선플정치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행복지수보다 분노지수, 불행지수가 더 높은 나라라고 인식하십니다. 그러한 원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악성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분노감을 느끼는 이유, 그래서 부정적인 악성댓글까지 적는 이유는 뭘까요?

분노감을 표출할 대상에 의해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 대상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실망감을 느껴서일 수도, 심지어는 아무 이유 없이 재미로 적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노표출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린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가 상처 주는 말 대신 기분 좋은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을 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선플운동본부와 청소년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악플보다 선플이 많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

## 표창원 의원 (선플 大賞)



안녕하세요. 용인시정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말과 글의 중요성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SNS를 이용하다보면 나오는 생각이 다른 이들, 또는 새로운 의견과 비판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전한 비판은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공간을 보면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악성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댓글이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였습니다. 정의란 말은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 인터넷에서 마주하는 이들에게 배려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로가 주변을 되돌아보고 이웃의 상처를 보듬을 때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플 운동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에 함께 할 청소년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국회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의원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선정한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선플재단 ·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시대, 인터넷 공간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 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고,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도 내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선플재단 · 선플운동본부는 지난 9년간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달기운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공간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선플재단 · 선플운동본부 비평처럼 선플을 통해 배려와 존중,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팔달구 국회의원 김영진입니다.

## 김도읍 의원



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심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은 이런 큰 상을 부족한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라는 뜻으로 알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내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책임을 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말이란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정

치인들의 말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처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플운동본부」에서 수여하는 ‘선플상’은 국회의원들이 고운 말과 글을 사용하도록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플운동본부」가 ‘아름다운 사회’,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국회가 국민의 희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를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 김진표 의원



간을 지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言)은 생각의 집이고, 글은 말을 끄는 수레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글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는 ‘선플상’을 받게 된 것은 저에게 커다란 영광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할 정치 현장에서 바른 말, 고운 글을 사용하라는 미래세대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과 선플SNS기자단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익명의 공간인 인터넷에서 말과 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긍정적 기

능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악성 댓글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댓글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이버 독버섯’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플 운동의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세상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있더라도 항상 고운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

## 김영호 의원



원 김영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빚을 갚을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만큼 말에 큰 힘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기도 하고, 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특히나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많은 소통을 하는 세대인만큼 수많은 댓글을 쓰고, 또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의 선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또 다른

누군가의 아름다운 말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며 짧은 글과 말이라도 하나의 ‘선한 플로우’- 굳이 풀어쓰자면 ‘선한 흐름’이 필요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 치유와 긍정의 말을 사용한 것을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치인인 저에게 이런 막중한 ‘선플’ 사명을 더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쁘고 깨끗한 말로 국민을 대변하고, 청소년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선플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 “품격있는 언어 사용으로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

## 김한정 의원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은 미래의 꿈나무이자 나라의 주인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주셔서 더욱 뜻 깊고 소중한 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1위입니다.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골짜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말의 홍수’가 거칠게 끓어쳐 흐르고 있습니다.

홍수같은 말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돋보이게 하려다, 자칫 거칠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쓰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간혹 사용되는 거친 표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이야말로 건전한 토론문화와 상호존중의 필수요소입니다.

선플운동을 비롯한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우리 시대의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참된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바른 언어 사용과 소통으로 청소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바른 언어로 누구보다 열심히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 김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선플상’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선플SNS기자단이 직접 분석을 통해 선정한 아름다운 글과 말,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니 더욱 뜻 깊었으며 저의 글과 말, 행동에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정치사회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대립과 충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취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청취는 사라지고 토론을 빙자한 언어폭력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도 비방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이 보편화 된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런 문제점은 아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선플운동본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언어문화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힘써 주시는 선플운동본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말과 글을 쓰는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말과 글은 사람과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수상은 저에게 이런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인순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바야흐로 ‘말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통신과 방송기술의 발달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선플인성신문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바야흐로 ‘말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통신과 방송기술의 발달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반면 우리가 쓰는 말의 품격은 갈수록 훼손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말의 의미와 진중함은 사라지고, 경박한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 주는 자국으로는 결코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바른 언어생활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이끌어 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습관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나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고,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중 의원



선플 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국회의원 박성중입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 중이신 선플 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국회의원회의록을 분석하여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청소년 SNS 기자단’ 여러분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마디 발언할 때마다 국민의 소중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의 책임과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는 저에게 이상은 아주 뜻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말은 마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책임 있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의

원 박성중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SNS에서도 바르고 순화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 사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 문화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따뜻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고 고운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우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로부터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부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쓸 책임을 막중하게 느낍니다. 수상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은 물론이고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늘 몸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새기면서 의정활동에서도 더욱 분발하여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우리말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선플운동본부와 전국청소년선플SNS기자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플인성신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외장 박주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외장 박주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을 제정하고,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선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선플운동본부와 선플인성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도와 계신 선플운동은 우리 사회가 질서와 반복, 갈등과 대립을 딛고 이해와 배려, 소통과 공감의 시대로 발전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해주신 선플운동본부, 특히 선플 SNS기자단을 비롯한 학생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시상식이 열리고 있으나 이상은 그 어느 상 보다도 의미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선플교사들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고등학생·대학생들이 국회 회의록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하니 더욱 뜻

깊은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을 제정하고,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선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선플운동본부와 선플인성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도와 계신 선플운동은 우리 사회가 질서와 반복, 갈등과 대립을 딛고 이해와 배려, 소통과 공감의 시대로 발전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품격있는 언어 사용으로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 글과 말,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백승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시갑 국회의원 백승주입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로 아름다운 세상

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미래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밝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공간에서는 악성 댓글과 같은 언어폭력이 우리 사회의 소통 수준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충돌되

는 이해관계를 서로 소통함으로써 조정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거칠고 힘악한 표현을 일삼아 우리 정치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인터넷 공간의 선플 하나가 악플로 고통 받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플달기 운동이 대한민국 곳곳에 확대되어 남을 배려하는 밝고 따뜻한 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언행에 있어 청소년 여러분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어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 깊은 상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백재현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여러분, 선플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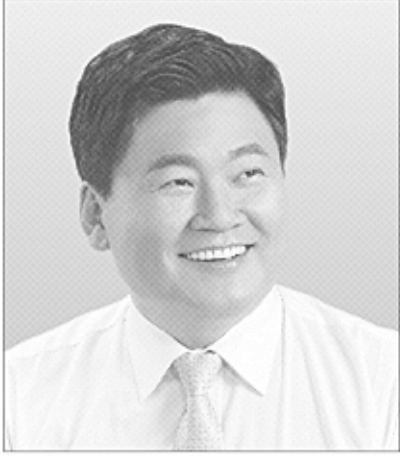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려면 정치권에서부터 좋은 언어, 바른언어를 사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실천으로 잘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이 가지는 의미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벽에 못질을 하면 그 자국이 선연하게 남습니다. 무언가로 그 자리를 메운다 하여도, 이전의 깨끗했던 벽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악

의적인 말, 조롱의 말, 멸시의 말, 인터넷에서의 악플 등은 모두 사람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쏟아진 물을 주위 담을 수 없듯,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렵겠지요. 배려가 가득 담긴 언어습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상상이상으로 멀리 퍼집니다. 그 향기는 바르고 고운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향기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 소병훈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 요.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먼저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당연한 일상이 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은 말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가면 뒤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는 문제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때문에 저에게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건전한 비판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선플달기운동'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이

해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말을, 선한 말이 선한 행동을 나타내게 하듯이 스스로가 상대방과 대화함에 있어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기보다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건전한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청소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상은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받은 것이라 더 의미가 크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과 글로 모범을 보이며,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선물하는 선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장 신상진입니다.

신위원장 신상진입니다.

먼저,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상을 주신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처럼 바른 언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은 나의 인격을 비추는 창이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함양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타인을 상처 주는 말, 근거 없는 비난 등 바르지 못한 언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

어가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을 무기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는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바로 선플운동본부의 청년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저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을 통해 보다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청소년과 국민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는 의정 활동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특히 전국의 청소년 선플 SNS 기지단이 뽑아준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고 또 소중합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듯, 말과 글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글로 바로 옮기느냐에 따라 스스로가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쓰는 말과 무심코 쓰는 글에서 자신이 인성과 품격이 배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온라인과 SNS가 발달하면서 바른 말 고운 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

니다. 때로 좋은 한 줄 글에서 감명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의 글에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바른 말 고운 글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과 주변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나아가 아름다운 말과 글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신명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선플운동은 모두에게 사랑의 능력을 키우고 생명과 행복의 싹을 피어나게 합니다.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선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승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 양승조입니다.

먼저 '제 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지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며 매우 신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행을 정치의 제1원칙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지단 분들이 이러한 저의 뜻을 알아 주시고 선플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 저의 정치생활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선플운동본부와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지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소년 여러분의 앞길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민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민봉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말 표현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들의 언행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전국 청소년선플SNS기지단이 선정한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흔히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는 입법, 예산·결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업무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정쟁보다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에 힘쓰며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 사회 제도 개선, 국민 안전도 제고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과 역량 강화에 힘쓰

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하고 행정부에서 수립하고 시행했던 정책과 국정과제들을 돌아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기를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입법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미래에 일조하기 위해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플상' 수상은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품었던 초심을 다시금 유지하는 계기이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좋은 촉매라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청소년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바를 위해 늘 한걸음 한걸음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소하입니다.

저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청소년 또한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정치의 주권자임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분들이 공동에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말과 사립을 가려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플상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더욱 올바른 언어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국회를 잇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플상을 수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잘해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플운동본부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의 말은 곧 정치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에서는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다시 또 다른 비난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는 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인 국정감사마저 '호통 국감'이라는 오명 하에 그 본질이 가려져버리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상을 받은 만큼 보다 나은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려와 공존의 언어를 사용하며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드는 움직임에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플운동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이종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종명입니다.

운동본부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플SNS기지단이 직접 저를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셨다고 하니 더 없이 기쁩니다.

우리는 말의 성찬 또는 말의 가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만 갖다 붙인 말의 성찬은 공허한 말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정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답아 주는 살아있는 말의 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2002년 뜻하지 않은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는 시련 앞에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2015년 9월까지 1호 장애인으로서 복무하다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면서 말의 힘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공약(公約)이 화려한 미

사여구에 불구한 공약(空約)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말 한마디에 진실한 마음과 실천을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말을 확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말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건네는 말이 따뜻한 사람과 격려를 품고 겨울날 시린 가슴에 온기를 지퍼 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소원해봅니다. 저 역시 선플로 그동안 소외되고 아픈 분들의 마음을 더욱 어루만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글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선플

이중배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 이중배입니다. 먼저 저에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은 새로움을 넘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상대를 이유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악플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간절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플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고통 받는 현실 속에서 선플운동본부가 실천하고 있는 선플달기 운동은 아름다운 인터넷문화,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있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정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



선플인성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 동해·삼척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상은 전국의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 대표학생들이 직접 선정하여 주셨기에 더욱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가끔 우리는 한마디 말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볍게 건넨 응원의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주기도 합니다. 소통의 공간으로 SNS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

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 확산되어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부터 선조들은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 하여, 세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실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에 대한 조소와 비방보다는 이해와 공감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자신의 생각과 견해도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저 역시 선플상 수상을 계기로,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



많은 의견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선플이라는 아름다운 말 대신 악플이라는 단어가 귀에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자랑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랑스러워할만 않습니다.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었던 인터넷 댓글 창들이 언제부턴가 서로를 공격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는 악플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악플이란 '악(惡)'과 영어의 'reply'가 합쳐진 말로, '악의적인 댓글' 즉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뜻합니다. 악플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악플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창은 우리 사회의 축소된 현실이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악플을 사소한 하나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공론화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악플 문제를 드러내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댓글을 다는 개개인의 사람들의 성숙한 의식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함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말하는 자, 함담의 대상자, 듣는 자, 악플은 악플이 달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적은 사람 그리고 그 악플을 본 모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플상 시상식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댓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선플상 수상자로서 올바른 언어만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조정식 의원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선플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는 상이라 더욱 뜻 깊습니다. 선플운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플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000명의 초·중·고 학생 중 17.2%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위가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언어폭력이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한 이후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한 경

우 자살까지도 생각한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과 자신이 했던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뒤 상대방을 배려·존중하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던데 올해 '선플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배려와 존중의 말을 사용해 국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의원 중의 1인으로 선정해주신 선플운동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 깊은 수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올바른 언행으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 쓰기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자기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격형성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상에서의 악플과 비속어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사용은 공동체 파괴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플'은 단순히 언어순화 교육의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적 삶을 생각하고 배움을 실천해 가는 활동입니다. 선플 운동에 많은 학교와 기업, 단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름답고 바른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호 의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전국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상에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보급되면서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NS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통신 매체의 발달은 잘못된 말, 나쁜 말들도 급속히 퍼져나가게 하고, 이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아

픔을 주기도 합니다. 말의 자유가 오히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 곳의 청소년들 보다 훌륭한 재능과 인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국가'의 국민답게 SNS 활동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플' 사용을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의 따뜻한 응원, 선플! 호박패밀리가 함께합니다.

# HOBAK FAMILY

**호박식당**  
이키니주 외규민모집  
02.798.7905

**한와담**  
원우 속성 동심 전문점  
02.749.7905

**Charlies CHICKEN**  
Limited Chicken Service  
02.2236.7905

**Pumpkin**  
다저푸드서비스 카페  
02.733.7905

**Yangpai**  
양파치 양파치 전문점  
02.794.1105

### ‘선플커넥터’ 강석호 의원 선플청년포럼 회원들과 소통시간 가져



11월 2일, 강석호 의원의 선플청년포럼 회원들이 의견과 생각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플청년포럼)

새누리당 최고위원 강석호 의원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일 한남동에서 선플청년포럼 회원들과 생각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플청년포럼 정은재 회장(알마 스튜디오 회장님 대표)은 “청년 대표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나라가 힘들때

는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라며 “11월 4일 부터 청소년과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선플청년포럼 정은재 회장과 함께 선플커넥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선플커넥터’ 캠페인은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과 실제 의사가 된 전문가가 만나고,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과 실제 정치인이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응원이다.

선플청년포럼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을 찾아 선플커넥터 캠페인과 함께 지원한다.

조용태 기자

### 김천 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 우수활동 경북도지사 표창 등 수상 등 상복 넘쳐

김천석천중학교(교장 이각용) <마을이람 세상의 빛 선플> 선플 동아리의 활동이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활동 우수 사례로 선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창(박용욱 교사, 2학년 김도현 학생), 2016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선플동아리 장려상 수상 및 개인 부문 우수상(2학년 백인우 학생 경상북도지사 표창장), 2016 하트하트 재단 전국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특별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 1만동아리 우수동아리 및 UCC 공모전 우수상(2등) 수상 등 연일 좋은 소식을 전했다.

김천 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는 사이버 악플, 폭력 예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실천하는 인성동아리로서 단순히 참여에 의미를 두지 않았고, 참여하여 항상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항상 성과를 내 1년 동안 일취월장(日就月將)했다.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는 올해 김천시 청소년 문화행사 ‘일취월장’에 3회 참여해 선플부스 운영 및 선플 홍보를 하였고, 2016 청소년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 캠프 및 선플SNS기자단 캠프 참가, 선플블로그(최다포스팅) 및 선플 SNS기자단, 선플 언어 모니터링단 활동,

선플퀴즈, 선플스티커, 선플서약서 만들어 언어문화개선 홍보, 선플 교내 캠페인, 거리 캠페인, 시장 캠페인 하기, 착한 선플가게 선정하기, 대전 우수중 재운 학생을 향한 응원 선플 및 거리 캠페인(YTN 뉴스 출연) 이 외에도 약 100여 가지 활동에 참가하며 명실상부한 선플학교의 떠오르는 새별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는새 사람들의 머릿속에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 12자를 각인시켰으며, 이 결과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는 올해 경상북도 1만 동아리 중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었고, 당당히 김천석천중학교는 선플우수학교로 지정되었다.

선플동아리 지도교사 박용욱은 “선플 활동이라는 것은 단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선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꾸준함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화려한 가치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다짐했다.

현재 김천석천중학교 교내 선플동아리 조직은 매우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번에 걸친 교내 선플교육으로 전 학년에서 선플이 생활화 되어있으며, 선플동아리의 미래인 1학년의 활동 역시 활발하여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김천 석천중학교 선플 동아리 활동 모습들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다듬은 말’ 발표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생소한 외래어 다섯 개를 골라 다듬은 말을 발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제안받은 다듬은 말 후보 가운데 말다듬기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듬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10월 ‘비하인드 컷’, ‘프레스 롤’, ‘어뷰징’, ‘소셜 다이닝’, ‘그림 엑서사이즈’를 골랐을 우리말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말다듬기위원회의 의미적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기준으로 논의를 거쳐 ‘미공개 장편/미공개 영상’, ‘인론 시연회’, ‘조희 소 조작’, ‘발상모임’, ‘그림 운동’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듬은 말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다듬은 말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얼마 전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촬영 현장 미공개 장면(=비하인드 컷)이 공

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인론 시연회(=프레스 롤)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관례를 대신하여 공공한 점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 같은 기사를 중복 전송하는 등의 조희 소 조작(=어뷰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밥상모임(=소셜 다이닝)이 확산되고 있다.

- 운동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혼자서는 동기 부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운 생활 체육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그림 운동(=그림 엑서사이즈)에 참여하면 처음의 운동 다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12월 중에 ‘피오 피(P.O.P.: 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콘시어지(consierge)’, ‘클리어런스 세일(clearance sale)’, ‘굿즈(goods)’, ‘바이백(서비스)buyback (service)’, ‘이북(e-book)’의 다듬은 말을 공모하여 다음 분기에 다듬을 예정이다. 이경 기자

# 100만선플자원봉사단 서울시 강동구 출범식

## 언어문화개선 선플운동 둔촌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앞장서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정글레 둔촌고등학교 교장, 다섯 번째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여섯 번째 실재권 국회 외교교통위원회 위원장, 일곱 번째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 여덟 번째 이금표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금표)은 10월 27일(목) 오후 2시, 둔촌고등학교(교장 정글레)에서 실제 권 국회 외교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한동권 선플포럼회장, 이금표 강동송파교육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선플 자원봉사단 서울시 강동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선플재단은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선플자원봉사단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27일 현재 63만명의 선플자원봉사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실재권 국회 외교교통위원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악플은 사람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선플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또한, 선플운동을 통한 민간의교활동은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이사장은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에 참가자가 많아지고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가 확산되면 사회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에 선플인성교육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철 교수가 2007년 자신의 영아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90만 개를 넘어섰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율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태 기자

### 경희대 선플달기 봉사활동 공식인정 1호대학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학장 박한규)은 11월 22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관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및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플실천 협약을 통해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은 대학 최초로 인터넷 선플달기 활동을 정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여 자원봉사 학점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플운동실천협약을 체결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춘 세계화 시대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3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체 교육과정과 해외 유수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십,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동문들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언론 및 방송, 비영리단체(NGO), 공공기관, 대학원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박한규 학장은



선플재단과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이 11월 22일, 경희대 국제대학관에서 ‘선플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선플문화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경희대학교

표창원 의원은 “20년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상담해왔는데, 어린 시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말 한마디가 내면의 악을 키웠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칭찬과 응원의 선플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인터넷상의 악플은 치명적 상처를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한다.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선플운동에 많은 학교와 기업, 단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아수업을 들은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63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플이 690만개를 넘어섰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폭력 발생율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태 기자

### 한국문화정보원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 한국문화 동영상 콘텐츠 제공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은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학근, 이하 재단)과의 상호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제작된 7편의 한국어 · 한국문화 동영상 콘텐츠를 11월 2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보원과 재단은 이미 지난 2012년 11월, ‘한국어 · 한국문화 세계화와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정보원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문화정보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문화PD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에 시작된 해외문화PD 사업은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 부응해 해외문화원에 영상 제작 실력을 갖춘 해외문화PD를 파견해 각국의 한류 소식을 미디어콘텐츠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국내외에 전함으로써 우리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보원은 국내외의 문화영상 3,200여 편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의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을 총괄 및 관리하기 위해 2012년

### 공문서 한글전용 및 초중생 한자선택교육 ‘합헌’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월 24일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쓸 수 있어 한자혼용방식보다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

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부 고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한자 교육은 우리 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이므로 국가는 적어도 중학교 이상의 학

김민정 기자

칼럼 석호익 / 통일IT포럼회장,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인터넷 자유도’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21일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체 점수에서 36등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 자유도란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쓰는지, 인터넷에 각자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인터넷 사용자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점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다. 보고서는 세계 인터넷 인구 88%를 차지하는 65개국의 인터넷 자유도를 조사해 작성했다.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가 6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캐나다와 미국, 독일이 각각 3, 4, 5위였다.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가 각각 7, 8, 9

위에 이름을 올렸고 필리핀(13위), 브라질(18위), 나이지리아(20위) 같은 나라의 순위가 한국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3분의 2가 정부 검열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 앱 단속이 강화되면서 세계 인터넷 자유도가 6년 연속 하락하였다. 중국은 2년 연속 최악의 인터넷 자유국으로 꼽혔으며 시리아와 이란이 뒤를 이었다. 북한은 조사 자체가 어려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데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점 줄어든 32등을 기록하며 다소 개선됐지만 2014년 33등, 2015년 34점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악화됐다. 내용으로 보면 한국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점 만점에 3점으로 매우 좋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35점 만점에 15점을, 그리고 사용자 권리에 대해서는 40점 만점에 18점을 각각 부여받아 다소 미흡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하락한 이유로 분석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금년 5월 사이에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먼저 꼽았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감시 없이 개인 통신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얻은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일을 말한다. 또한 "한국 규제기관이 민감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검열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제재와 검열도 문제로 삼았다. 아울러 "2016년 한국의 규제기관이 네이버 포털의 온라인 동성애 드라마에 대해 '규제'를 하라고 했다"면서 성소수자를 다른 콘텐츠 제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3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키스 장면이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다며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웹사이드 검열도 도마에 올랐다. 프리덤하우스는 "2016년 5월 영국 언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한국 규제기관에 의해 차단당해 이익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발표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보급률이나 활용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나 사용자 폭력, 책임 있는 권리 행사 등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부족한 인터넷상에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더 보장하고 사용자 권리보호를 제고하도록 법·제도적 보완과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자유도 제고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에 분골이하듯이 적개심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상대에게 무차별 공격하거나 대립과 갈등 조장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된다. 즉 인터넷 자유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보호와 조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질서 유지 및 국가 안전보장과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인터넷 자유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선플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이 11월 7일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 시상식에서 선플상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134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 기자단' 대표들이 지난 10월 한달 간, 20대 국회 시작부터 지난 10월까지의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여 선정된 사람들이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국회의원들을 분석한 것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특정 언어나 어휘에 조금 더 배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은 어떤 상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종 선플교사협의회 서울회장은 선정경위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전국선플지도교사협의회 교사들이 협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제시한 분석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적으로 고등학생 기자단 여러명의 학생들이 회의록에 기재된 순화언어와 비순화언어를 확인하였다."며 "이렇게 체크된 내용을 2차적으로 대학생기자단이 재검토와 집계를 하였고, 선플지도교사들과 선플참여교수들에 의해 3차검토를 거쳐, 순화언어 사용 점수에서 비순화점수를 뺀 점수가 높은 순서로 국회의원 31명을 선정, 그 중 순화언어 사용이 가장 많은 각 정당별 한명을 선정하여 선플 국회의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어느 누구도 의혹을 제기 못할 공정한 선플상 수상은 그 자체가 영예롭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시상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들의 맑은 눈을 의식해달라는 주문과도 같다.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사이버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이 노력한다면 미래는 무척 희망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어른들이 함께 하는 응원과 배려의 인터넷문화가 자리잡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위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사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플을 추방하고 주위 사람들이 잘되도록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을 위해 국회의원부터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어린이가 TV를 통해 많은 말을 배운다면 청소년은 연예인과 정치인들을 통해서 유행어를 만든다.

연예인보다 정치인들은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그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말을 단순히 재미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동진 선플포럼 회장이 "수상하신 여러분들께서 국회에서 착한 말과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수상받으신 분들을 보고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잔치 속에 살아가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에게 더욱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플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칼럼 이현원 / 칼럼니스트

격려하는 말의 힘은 배추도 강하게 키운다



배추는 8월 중순경, 도시의 그림자라곤 보이지 않는 어느 시골의 척박한 땅에 내동댕이쳐져서 자라났다. 두툽하게 솟은 발두

독이 평생을 살아갈 새 보금자리다.

여름철 마른잠마가 계속되면 푸석 푸석한 땅에서 그대로 말라 죽을 수 있다. 흠으로 덮인 캄캄한 하늘에서 비라도 내리려면 길길이 해소되고 숨이 띠어 크게 쉴 수 있을 텐데,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으니 지중 속에서 나와 고고의 성을 지르는 새 생명이 된다. 흥분이 채 가라앉기 전에 두 잎의 이파리가 솟아나고 얼마 안 되어 잎이 네댓 장까지 자란다.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배추들이 웅기쭈기 솟아 발뽀기를 연두색으로 장식한다.

그로부터 배추를 돌보는 주인의 전 걸음이 시작된다. 하루 종일 밭에서 지내는 날도 있다. 파사한 가을 햇살은 하루가 다르게 배추를 키워 준다. 유년기가 지나자 어디선가 별레가 달려들

어 배추를 잡아 먹으려 하고, 진땀물은 아귀차게 덤벼들어 피를 빨곤 한다. 몇몇 동로 배추는 삶을 잡는 희생자가 나온다. 주인은 독한 약으로 해충을 쫓아냈고, 그 때마다 배추는 구역질을 참느라고 혼이 난다.

빛물과 거름도 배추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결코 도우미만 있는 건 아니다. 동로들 중 더러는 주인이 '슈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무름병'이란 불치병에 걸려 통째로 뽑히기도 한다. 천둥과 번개에 놀라 몸을 웅츠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종종은 배추의 일부 이파리를 벌레의 회식에 썩는다. 그럴 땐 배추는 자라기 위한 통과절차라니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다.

주인의 말과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크는 배추다. 그 발걸음은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성장 비타민제를 주는 등 기대를 부풀게 한다. "잘 자라달라"는 보호자의 격려의 말과 살뜰한 보살핌으로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는 까다로운 성격을 맞춰주고, 해충의 공격도 막아주는 등 제대로 보호를 잘 받으며 큰 탈 없이 자라게 된다.

계절이 쌀쌀한 늦가을로 접어들면 제법 어른스러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높고 푸른 하늘은 배추를 살찌게 한다. 같은 곁에서 초록색 주름치마를 두르고 속은 하얗고 부드러운 내의를 두둑이 껴입는다. 주인이 드림통 같은 배추의 허리를 지푸라기로 동여매주면서 신이 난다. 똥통해진 몸에서 아무렇게나 허리를 두른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꼳꼳거리러서 조추거리 피식 웃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거간꾼이 찾아오고 배추를 두고 주인과 흥정을 벌인다. "그 높고강이가 아주 좋구먼",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어", "값을 잘 쳐줄 테니 나에게 팔뽀기로 넘기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찌가 으쓱해 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운명이 다 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 배추를 보살피던 대가를 돈으로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이 한창 지나 뽕서리로 대지가 차갑고 까칠해진 날, 배추가 송두리째 뽑히면서 이제 밭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된다. 영구차 같은 트랙에 쪼여 실려가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느 아주머니에게 팔리는 신세가 된다. 사람들은 배추로 김장을 한다. 몇 십포기 배추가 새로 주인이 된 집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제 배추라는 이름은 수명을 다해, '배치 성'에서 김장 또는 김치의 '김치 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신세다. '김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엄준한 산을 넘어 변신을 해야 한다. 그것을 다섯 번의 고비와 다섯 번의 변신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힐 때이다. 태연하려고 애쓰지만 갈 때를 아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몸을 4등분으로 가를 때이다. 잘리는 고통도 있지만, 허식의 두꺼운 옷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야 참다운 배추 모습을 보여주는 자긍심이 있다.

세 번째는 소금을 뒤집어쓰고 절일 때이다. 헛헛해진 몸이 물기를 먹으며 소금과 함께 어울려서 부드럽고 온유

한 몸을 만드는 과정이다. 김치라는 변신의 언덕을 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기분이다. 타고난 역전 체질에서 벗어나 주위와 화합하며 더불어 사는 조화를 배운다.

네 번째는 온 몸이 젓갈과 양념을 곁들일 때이다. 짜디 짠 젓갈에 고추, 마늘, 생강 등으로 맵고 아리게 비벼진 시벌건 범벅을 뒤집어올 때는, 용광로에서 시련과 고통으로 단련되어야 새로운 제품이 태어나듯이 김치란 이름의 삼금한 음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다섯 번째는 김치독에 담겨 땅에 묻히거나 김치냉장고에 갇혀 비로소 성숙된 김치가 된다. 이 때 백만 배로 늘어난 수분과 영양이 수렴하는 수렴을 생각한다.

'김장은 손으로 버무려야 제 맛이 난다'는 등 아낙네들의 수다를 들으며 그 관대작으로부터 서민에 이르는 대중적인 반찬으로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니 지난해 고생도 잊을 수 있다.

배추는 주위 환경의 수용물이나 변화에 저항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의 죽음을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순음해왔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절망의 순간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아 조화와 변화를 통해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 단련 속에 배추는 주인이 격려하는 말과 발걸음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길고 먼 삶의 여정에서 행동으로는 씨를 뿌리고 잡초를 솟아내지만 '잘 자라든지 말든지' 하는 말을 불쑥 내뱉기라도 했다면 배추는 힘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칼럼 차선미 / 우리아이집키이 이사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이 유행해서는 안된다

요즘 학생들의 입에서는 비속어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비속어는 한 두 명이 시작하게 되면 어느 틈에 분위기를 몰고가 모든 학생들의 입에서는 비속어가 버터처럼 나오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속어가 단순히 몇마디의 언어유희로 그치지 않고 심각한 도덕불감증까지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좋은 말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짧는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비속어에 빠져 들어 더 감각적이고 더 충격적인 언어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비속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 패드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패드립은 바로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어떻게 욕을 하는가 싶지만 이 패드립이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부모님을 욕하던 아이들이 집에만 들어가면 순수한 초.중.고 학생들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말할 자기들은 이렇게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놀 스트레스 속에 있어 그것을 풀고 싶어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분노가 많다'고 말한다.

심신 함께 성장해야 하는 학생시절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움직임 에너지를 소모시키던 예전의 활동대신 머리와 눈으로만 움직이는 스마트 폰과 컴퓨터로 심신의 불균형도 그 한 몫을 하지 않는가 한다.

또 사이버 세상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두 세계를 오가는 습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두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막상 말하는 사람은 그 비속어가 얼마나 듣기 거북한지를 모르고 있다.

당사자들은 한마디만 비속어를 들어

도 감정이 폭발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상대방에게 마구 비속어를 날린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언어문제만이 아니라 배려에 대한 윤리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속어를 듣는 경험을 한 학생은 매우 불쾌하며 삶에 대한 회의까지 든다고 고백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속어가 널리 퍼지고 학생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고백하길 학교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욕하던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순수한 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밖에서 비속어를 마구 내뱉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착한 코스프레'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래도 자신을 먹여주고 키워주는 부모에 대한 예의와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욕하는 대상은 다양하기도 했다. 친구들, 선생님,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 심지어 부모님까지 해당된다.

밖에서는 부모욕을 하는 패드립을 날리고 집에 가서는 '운순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듣는 아이로 거들떠보지 않는 무언의 생존전략인 셈이다.

학생들은 욕할 때의 기본에 대해서 신나고 자신이 좀 잘나가는 느낌이 들고, 짜증날 때 욕을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이런 비속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비속어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막기는 사회가 되어 자신에게 부패됨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말이 그 사람의 거울이 되고 있음도 알려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비속어 커질 사이버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말, 격려를 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려면 현실에서 비속어의 무분별한 범람을 막아야 한다.

말 속에 뼈가 있고 뜻이 있는데 부모를 욕하는 패드립은 패륜아를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이버윤리교육

김천석천중학교(교장 이각용) (마음아람 세상의 빛 선플) 선플 동아리의 활동이 인터넷관리침해 예방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창 (박용욱 교사, 2학년 김도현 학생), 2016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선플 동아리 장려상 수상 및 개인 부문 우수상 (2학년 백인우 학생 경상북도지사 표창장), 2016 하트하트 재단 전국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특별상 수상, 경상북도교육청 1만동아리 우수동아리 및 UCC 공모전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

김천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는 사이버 악플, 폭력 예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실천하는 인성동아리로 항상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선플우수학교가 된 석천중학교의 저력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석천중학교 선플동아리 박용욱 지도교사가 '선플 활동이라는 것은 단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선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꾸준함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화려한 가치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옛날 수 있듯이 지도교사 스스로가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선플활동의 가치와 즐거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실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천석천중학교 교내 선플동아리 조직은 매우 탄탄하다.

선플 또한 교육이 중요하다.

사이버 세상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선점하고 아이들이 더욱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세상을 교육시키는 것에 늦설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래세계의 많은 부분을 사이버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사이버세상의 도덕 윤리교육은 너무 중요하네 비해 실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교내 선플지도교사가 스스로의 소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다. 현실은 사이버 윤리교육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사이버세상의 윤리 도덕교육을 선플교사들이 봉사와 미래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하고 있는 셈이다.

석천중학교는 교내 선플교육으로 전 학년에서 선플이 생활화 되어있으며, 선플동아리의 미래인 1학년의 활동 역시 활발하여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선플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학교에 대한 명예도 동시에 올림으로써 학교와 학생에 자부심을 심어 주어 사이버 윤리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것만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 미래세대를 위한 사이버윤리교육에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선플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여영미	인쇄 · 이희구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06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유희빌딩 15층			
대표전화 02)535-3449	팩스 02)6008-3377		
편집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